

상록탑

# 신고는 예방이 아니다

얼마 전 친구와 약속이 있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었다. 분주히 제 갈 길을 가는 인파 속 계단을 내려가는데,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그곳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신고가 예방입니다.”라는 문구가 붉은 글자로 인쇄돼 있었다. 특별한 문구도 아니고 딱히 눈에 띄는 이유도 없는 포스터였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위에 덧 쓰인 글자였다. 누군가 포스터 위에 유성 매직으로 가위표를 치고 문구를 고쳐놓은 것이었다. “몰래카메라 촬영, ‘찍지 않는 것’ 예방입니다.”

그야말로 ‘몰카 공화국’이다.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나, 해를 거듭할수록 견잡을 수 없는 정도는 우리 일상을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로 곤두서게 한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기숙사, 심지어는 쇼핑몰이나 공연장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사리고 있는 불법 촬영의 위험 속에서 그동안은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위를 잘 둘러보라, 짧은 옷을 입지 말라, 가릴 것을 챙겨 다니라... 그리고 여차하면 신고하자.

그러나 그날 지하철역에서 본 포스터의 대담한 가위표는 나에게 ‘네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맞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생각이 없어



전혜진  
대학취재부부장

“  
전염병처럼 퍼지는 불법 촬영,  
찍지 않는 것 이상의 예방은 없어”

서, 더 조심하지 않아서, 옷차림이 단정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몰래 찍기 때문에, 유포하고, 소비하고, 그것에 침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만 해도 6465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하루 평균 17.7건꼴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수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심지어는 잇따른 공무

원 몰카 사건 등 웬만한 불법 촬영 범죄 기사는 이제 뉴스도 아닐 지경이다. 날마다 현대판 판옵티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정작 처벌은 너무도 가볍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10건 중 9건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고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 벌어진 일을 신고하는 것은 본질적인 예방이 아니다. 강력 단속으로 불법 촬영의 뿌리를 뽑아 신고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적발되면 솜방망이 조치 대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이다. 찍지 않는 것, 사지 않는 것, 찍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이 예방이다. 뉴욕타임스에 한국의 몰카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보도된 것이 부끄럽다면, 진정한 의미의 예방이 무엇인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원한다. 더이상 몰카가 격정돼 외출해선 화장실을 잘 가지 않는다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싶다. 애꿎은 나사구멍을 의심의 눈초리로 뺨히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싶다. 어찌다 가게 된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실리콘이나 휴지 조각으로 막아 놓은 벽의 구멍을 보고 서글픈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 싶다.

학생 칼럼

# 더불어 살아가자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배운다. 우리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논의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현 실상은 이런 아름다운 존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얼마 전 보도되었던 대전 길고양이 사건을 기억하는가? 대전에서 1000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죽여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이 남성은 8년간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만 쥐약을 탄 음식을 곳곳에 놓아 1000여 마리의 고양이를 죽였다.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노력 끝에 그를 붙잡았고, 그는 그의 잘못을 시인했다. 심지어 직접 자신이 놓은 쥐약을 꺼내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고양이 사체를 검거 당시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미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큰 사건들을 제외해도, 동물권 관련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재없이 발생한다. 내가 이사하기 직전 살았던 아파트 관리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길



권유진  
사회 18

고양이가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한겨울 추위를 피해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고양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들은 약을 탄 음식을 넣은 밧을 준비했다. 그곳에 잡힌 고양이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져갔다. 구청에도 문의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나마 허가받지 않은 길고양이 포획용 밧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을 빌미로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겨우 그 밧을 치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었다. 현재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 세 마리도, 길바닥 출신이기 때문이었을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동물권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동물학대를 마주해 왔을 것이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부터, 방송 보도까지 해당 사건을 접할 기회는 많다.

너무나 잔혹한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그 분노는 쉽게 식는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이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가해자가 잡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잡혔다는 소식만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 한 없이 쓸쓸해진다. 물론 사람을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기대할 것도 없다 싶긴 하지만 말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해를 가한 자는 단기간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원 가량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징역은 고사하고, 벌금형을 제대로 받는 경우도 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의문이다.

나는 동물권 관련 법률 자체가 강력해져야 한다고 보며, 그 시작은 우리 스스로가 동물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이어서도 안되고, 이런 현실에 무감각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글로만 배웠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현실로 옮길 때다.

여론광장

# 나는 이방인으로 남기로 했다

보통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어를 전공한 내 목표는 ‘프랑스인이 되기’였다. 내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프랑스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남들이 나를 그 나라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환학생으로 7개월간 살며 느낀 프랑스는 결코 천국은 아니었다. 느린 행정 처리와 잦은 파업, 노상방뇨 등 프랑스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인종차별이었다. 내가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야유했다. 거리에서 쏟아지는 위협적인 욕설 때문에 억지로 귀가해야만 했다. 혼자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성인 남성들로부터 병에 얼굴을 맞은 적도 있다. 목격한 수십 명이 모두

철저히 방관을 택했다는 사실은 프랑스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공기처럼 만연한 것인지 보여줬다. 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보통 교환학생들은 교환학생들끼리 친해져 무리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난 그것을 모르고 프랑스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 강의만을 수강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강의들에서 교환학생들은 극소수였고, 나 홀로 외국인인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말을 걸어 친해지고, 동아리에도 들어갔다. 아무리 프랑스어로 편히 소통할지라도, 살아온 삶의 방식과 유머코드가 다른 소위 ‘짜두기’가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난 절대 프랑스인이 될 수 없었다.

김기이(불문·16)

사설

# 총학, 일처리에 반성 필요해

지난 4일 오전9시 진행을 앞두고 있던 인사이드 이화 ‘대외이미지/취업/고시팀’ 협의체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름 아닌 학생 참관 가능 여부에 대한 총학 및 학교 측의 의견차 때문이었다. 총학은 학생 참관을 허용하거나 협의체 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참관을 허용하고자 요구했고, 학교 측은 우선 당일 열리는 협의체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를 수용하지 못한 총학은 협의체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현안이 대외이미지 및 취업, 고시 지원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인사이드 이화 협의체’에 학생 참관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3학년 이상이라는 것, 즉 16학년 이상이라는 점을 미뤄본다면 이들은 모두 제각각 미래 대사를 겪으며 학교에 대한 불신을 경험한 세대다. 이들에게 학교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관 및 발언권을 주는 것은 학교에 대해 누적돼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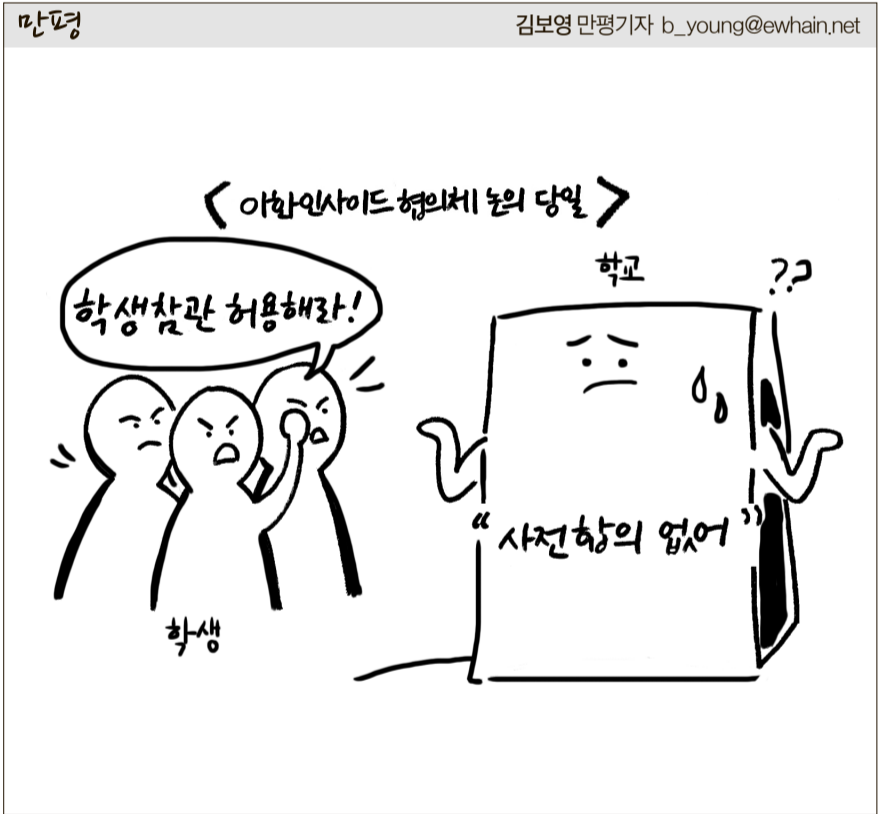
문제는 총학의 준비성 및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함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총학은 무려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즉 회의장 내부에서 그 즉시 학생 참관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 참관에 대한 변수는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그들과 무관하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총학이 진정으로 해당 사안에 진정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면, 또한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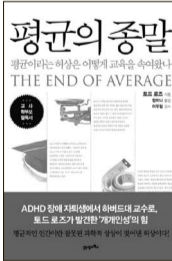
인사이드 이화 협의체에 참관을 원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어야 했다. 회의장에 들어서서 해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 회의장에 들어가 전까지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용동성이 부족하기도 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민감도 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회의를 진행해 학생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한 후, 회의장 내에서 협상을 거쳐 학생 참관 기회를 얻어내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결국 총학도 이를 이제야 깨달았는지 “1차 협의체는 이렇게라도 진행하겠다며 “학생 참관이 가능한 2차 협의체를 요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소 뒤늦은 깨달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총학은 또다시 신뢰를 잃게 됐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한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전달해서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전에 합의된 공식적 운영방식 및 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학생에게도 학교 측에게도 실망을 안겼다. 문제는 이것이 총학의 첫 번째 실수가 아니라 점이다. 총학은 지금까지 유사한 사안으로 충분히 비판받아왔다. 게다가 총학은 임기가 5년씩이나 되는 대통령도 아니다. 이제는 만회할 기회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금주의 책



**평균의 종말: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 토드 로즈 지음, 파주: 21세기북스, 2018.

개인주의적 가치가 최우선 시 되는 요즘, 평균이라는 단편적 기준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우려를 의식이라도 한 듯 평균주의가 인간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 여러 분야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평균주의의 대안으로써 제시한 개개인의 원리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인생의 낙오자로 평가받던 저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선도적인 교육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특별한 경우다”라는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다양성이 고르게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는 이화인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2층 학습·연구지원실 지정도서서가 155.2 R722e한]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문의아이들 2부, 데모닉	전민희	제우미디어	2003-2006
2	인소의 법칙	유한려	Itbook : 디앤씨미디어	2015-
3	(청소년)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이룸	2003
4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5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0808-0906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문의아이들 2부, 데모닉	전민희	제우미디어	2003-2006
2	인소의 법칙	유한려	Itbook : 디앤씨미디어	2015-
3	(청소년)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이룸	2003
4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5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